

사회적 표상의 개념으로 분석한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인식차이: 일상생활의 문제행동 빈도와 중요성 지각에서 나타난 의사소통의 특성

황 상민

세종대 교육학과

김 현정

이화여대 가정관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표상의 개념을 적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청소년 자녀가 보이는 문제행동에 대해 청소년 자신과 부모가 형성한 이해의 틀이 동일한 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만일 문제행동의 지각에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을 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방식과 특성에서 찾고자 한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 청소년 자녀와 부모 집단이 가진 "사회적 표상"이란 이 문제행동의 빈도와 문제성에 대한 지각특성이다. 총 251명의 청소년과 164명의 아버지, 176명의 어머니들이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행동"에 대해 빈도나 문제성에 대한 지각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이것은 행동유형에 따라 달랐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 집단이 가진 일상생활의 문제행동 지각이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특성에 따라 의미있게 예언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의사소통의 유형에서, 문제행동을 문제시하는 정도에 따라, 회피적인 의사소통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 모두는 자녀의 문제행동 빈도를 지각하는 틀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성 정도를 판단하였다. 의사소통의 특성으로 부/모/자녀의 사회적 표상의 근원을 분석한 결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행동빈도 지각에 강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특히 권위적 측면이 주된 내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의 일상 문제행동을 얼마나 문제시하는가와 관련된 표상의 기본특성에서는 부모 모두에서 회피유형이 절대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자녀는 부/모가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부모 모두 폐쇄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현시대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자녀의 눈에는 진심으로 개방적인 마음에 바탕을 둔 것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고 해석되었다.

청소년 행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많은 경우 이미 사회문제가 되어 버린 후의 상태인 청소년 비행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김경신, 1993; 청소년문제연구회, 1979; 한국아동·인구개발의원연맹, 1990).

특히, 연구의 대부분이 비행행동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현상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측정하였다. 그러나, 보통의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훈육 중에 이루어지는 부모-자녀관계에서 크고 작은 갈등

을 경험한다. 대개 이런 갈등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며, 서로의 의견대립이 심해지면 '세대차'를 호소하게 된다. 물론, 이 갈등의 정도가 커지면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세대차'로 불리는 부모와 자녀의 갈등적 사고체계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세대차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세대간 집단들의 인구분포적 특성과 특정 변인간의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모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더 폐쇄적이고(김진희, 1989; 옥선화, 1985), 의사소통이 폐쇄적일수록 비행행동은 더 빈번하다(이정희, 1989)는 것 등이다. 이런 결과들은 서술된 관련성 여부 이상을 의미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작용할 수 있는 그들 각각의 사고의 틀을 이루고 있는 요소나 내용을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에서 이들이 가지는 지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틀로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사회적 표상이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 나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사건들이나 사회현상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인식의 틀'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에 있어서의 어떤 개념적 체계'이다. 각 개인이 이러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기에 수없이 많은 사물과 사건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식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사회구성원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표상을 형성하고 있다(Mugny & Carugati, 1989; Purkhardt, 1993).

사회적 표상이 형성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

명될 수 있다. 사람들은 대인관계 내의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 중에서 자신의 것과 다른 인지적 구조나 사고방식을 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즉,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서로의 사고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사회인지적 갈등(socio-cognitive conflict)'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은 두 가지 양상으로 해결된다. 우선은 상대에 대한 직접적인 의존으로 표현되는 관계적인 동화이다. 기존의 인지적 반응에 수정을 가하지 않고 상대의 인지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이와 성인과의 관계처럼 불균형적인 관계에서, 아동은 성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아동은 성인이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보여주길 기대하여 자신이 느끼는 반응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성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틀을 받아들인다. 또 다른 측면은, 처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지적 구조들을 부정하지 않고, 새로이 일어난 자극이나 사회인지적 갈등을 조절하여 그에 통합시킨 새로운 반응 모델을 작동시키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인지구조의 조절이다(Mugny & Carugati, 1989).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 관계에서 볼때, 청소년들이 새로운 생활사건을 경험할 때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적 표상은,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또래와 공유되어 있는 사회적 표상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규범적인 사건이나 일을 처리할 때는 부모와 공유한 또는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사회적 표상을 적용하기도 하지만(옥선화, 1985), 자신의 일상행동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이미 그것이 또래와의 빈번하고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세워진 것이고 또한 세워지고 있는 것이어서 부모의 사회적 표상과는 적절한 협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청소년들은 점점 부모보다는 또래와 더 유사한 사회적 표상을 공유하게 된다.

개개인이 하나의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나름대로의 사회적 표상을 형성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사회인지적 갈

등 상황에서 인지적 진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과정은 대개의 경우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이 사회적 표상의 창조와 전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ommetveit, 1984). 따라서, 의사소통을 파악함으로써, 그 관계내 사람들의 사회적 표상의 내용을 비교하며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부모-자녀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 어떠한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는 서로의 사회적 표상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부모자녀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특성과 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유형에 대한 고려는 사회적 표상을 형성시키는 두 가지 기제(mechanism)인 거점화(anchoring) 및 구체화(objectification) 과정과 관련이 있다. 자녀의 생소한 행동에 대해 사회적 표상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서, 부모와 자녀는 그 분류나 명명에서부터 각기 다른 범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이성교제라는 행동에 대해 이미 부모보다는 또래의 영향력이 더 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의 영향으로 '공부'라는 것보다는 이성교제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 행동을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학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이성교제는 공부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여기고, 자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부모는 이 행동에 대해 '대학에 가서 하는 것'이라는 표상을 형성해 두고 자녀에게 이런 행동이 나타나면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특정 주제나 사건 또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면,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건이나 사람, 사물 등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표상에 맞추어 관례대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표상은 규범적이어서 개인이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그것을 따르도록 한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현재에 겪게 되는 사건을 과거부터 해석의 틀로 사용해 왔던 표상에 따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Purkhardt, 1993). 이런 측면에서, 부모는 자신이 이제까지 살면서 굳혀온 '부모'라는 위치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표상으로 인해 자신과는 다른 자녀들의 사고를 받아들여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표상 차이로 서로는 또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 폭이 넓어지면서 또다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표상은 형성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표상에서의 차이를 서로가 이해하여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상호작용을 통한 적절한 조절은 기대될 수 없어, 부모자녀 관계는 도전을 받게 되고 (Mugny & Carugati, 1989), 가정내에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증가되며 그것은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데 비해, 부모들은 청소년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Barnes & Olson, 1985). 이는, 자녀들은 부모가 권위적이거나 회피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그 관계는 폐쇄적인 상태에 있다고 여긴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서로의 사회적 표상 형성의 요소가 되므로, 사회적 표상의 특성 파악에 유용한 설명력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유대감과 친밀감, 의사결정 방식도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다(김진희, 1989 ; Barnes & Olson, 1985).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일상행동에 대해 부모와 청소년 집단이 각기 형성한 사회적 표상의 차이를 행동빈도와 문제성 지각의 정도에서 밝혀려고 한다. 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의사소통 유형과 방식으로 행동특성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런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들이 제시되었다.

가설 1.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행동에 대해 부모/자녀집단이 가진 사회적 표상은 서로 다를 것이다. 청소년 일상행동의 빈도를 지각하는 정도에서,

부모 집단은 자녀집단에 비해 생활 문제행동 빈도를 과소시키나, 그 문제성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의 이유는 부모집단은 비교적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빈도는 알 수 없으나, 부모가 가진 사고의 틀 속에서 판단되는 문제행동의 심각성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가설 2. 청소년들의 일상행동에 대한 부모/자녀 집단의 사회적 표상의 차이는 이것의 주된 형성요소인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청소년 일상행동에 대한 빈도와 문제 지각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부모/자녀 각 집단이 의사소통이 역기능적거나 폐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지각되는 경우이다.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전달이 없어 상호 공유하는 사회적 표상이 없거나 적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부모와 자녀간 인식 차이의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 자녀와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 자녀집단으로는 서울 지역의 중,고등학교 각각 두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 한 학급씩 임의로

골라, 집단으로 설문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부모 집단은 연구에 참가한 청소년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설문지를 주어 가정에서 기입하도록 하였다. 청소년 집단은 총 341명(중학교 1학년 113명, 중학교 3학년 110명, 고등학교 2학년 118명)이 참가하였으나, 254명의 설문만이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한 부분이라도 같은 응답을 계속 했거나 반 이상을 무응답한 경우는 부실한 3명을 제외한 251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부모들도 총 341쌍, 682명에게 배포되었으나, 회수된 것은 427명이었다. 이들 중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답이 한 부분이라도 똑같거나 반 이상의 내용이 무응답인 87명은 부실하다고 제외시켰다. 최종 분석 대상은 아버지 164명, 어머니 176명이었다. 자녀집단의 연령별, 성별 분포와 부모집단의 분포는 다음의 표1과 같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동,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방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다루고 있어, 보통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비록, 여가의 활용이나 학업형태 등에 관한 것은 드물게 찾아 볼 수 있더라도 생활속에서 '비행행동'보다는 빈번히 일어나면서 성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

표1. 연구대상 부모/자녀 집단의 연령, 성별 분포

	남	여	계	
중학교 1학년 (14세)	42	38	80	부 164
중학교 3학년 (16세)	35	44	79	모 176
고등학교 2학년 (18세)	47	45	92	
합 계	124	127	251	합계 340

지 않게 보이는 즉,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문제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다. 선행연구들(김화식, 1985 ; 조지행, 1987 ; 한국청소년연구소, 1990, 1991)을 참고로 하여 총 71문항을 선정하였다.

부모의 경우에는 자신의 자녀에게서 이들 각각의 행동이 보여지는 빈도를 응답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반응은 '전혀 보이지/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자주 보인다/한다'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이다. 또한, 그 행동들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는지도 함께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반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에서 '확실히 문제 행동이다'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 중 "역기능" 척도는 가족내에서의 의사소통에 관한 V.Satir의 이론을 참고로 하여, 김경화(1989)가 고안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녀의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생각하여 대답하도록 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는 스스로 자녀와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의사소통의 "개방/폐쇄성"에 관한 척도는 Barne와 Olson (1982)이 제작한 20문항의 Likert식 척도를 이연숙(1991)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두 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척도(Open Family Communication)로서, 상호작용에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감정하에서 사실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뜻한다. 다른 하나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척도(Problem In Family

Communication)로서, 의사교환에 있어 주저하고 주제 선택에 조심을 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면의 척도이다. 이 두 하위척도는 각각 10개 문항, 총20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10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총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의사소통의 유형에 대한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척도에 속하는 문항들에 대한 반응을 기초로 하여 각 집단별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각 하위척도들을 다시 산출하였다. 각 측정변인에 따른 요인들의 명칭과 하위 문항들은 부록1, 2에 정리되어 있다. 각 설문문항에 포함된 의사소통 방식(역기능성과 개방성)에 관한 척도들은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표2는 각 척도의 문항 수와 신뢰도 계수를 보여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사소한 문제행동들이 빈도와 중요성의 측면에서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 유형을 부/모/자녀 각 집단에서 빈도와 문제성의 지각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행동유형에 대해 각 집단이 형성한 사회적 표상이 다르다면, 빈도와 문제성 판단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행동유형의 지각에서 보이는 차이들은 부모-자녀 집단들이 일상 생활에서 형성하고 보이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예언할 수 있을 것이다.

표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역기능성, 개방/폐쇄성) 척도 문항들의 신뢰도

변 인	문항수	신뢰도계수(Cronbach's 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역기능성	20	.7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폐쇄성	10	.83

표3. 청소년 일상생활 행동 빈도에 대한 각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요인	1.	2.	3.	4.	5.	6.	7.	8.	9.	10.
1.	1.0000									
2.	.6374**	1.0000								
3.	.5977**	.6191**	1.0000							
4.	.2280**	.4704**	.4378**	1.0000						
5.	.4442**	.3964**	.5004**	.2606**	1.0000					
6.	.4237**	.4147**	.3429**	.1511**	.1624**	1.0000				
7.	.4722**	.3792**	.4508**	.2779**	.4907**	.2625**	1.0000			
8.	.4061**	.4887**	.4812**	.3988**	.3486**	.2501**	.3919**	1.0000		
9.	.2958**	.3563**	.2942**	.2263**	.1853**	.1757**	.2298**	.3597**	1.0000	
10.	-.0104	.0263	.1357	.2114**	.0546	-.0001	.0698	.1091	.0602	1.0000

** p<.001

1. 일상생활 행동의 구분

청소년의 일상행동이 나타나는 문제행동들의 유형을 추출하기 위해, 행동의 빈도와 문제성의 두 측면에 기초한 반응을 요인분석하였다. 전체 요인 분석결과, 10개의 하위변인들로 71개의 행동들이 범주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록 요인에는 속하지만, 의미상으로 전체 다른 문항들과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비교적 요인 분석치도 낮은 15개 문항을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남은 56 문항을 중심으로 모두 10개의 요인의 명칭을 결정하였다. 각 행동요인의 명칭과 세부 행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행행동에 포함될 수 있는 행동 (준비행동) : 음주, 밤늦은 귀가, 흡연, 전자오락실이나 당구장 출입, 외박, 음란비디오 시청, 오토바이나 **빠빠** 구입 욕구, 허락없이 여행, 음담패설, 자위행위, 이성교제
2. 말버릇 / 즉흥성 : 욕이나 거친말 사용, 부모에게 거짓말, 주어진 일이 싫으면 쉽게 그만둠, 생각없이 행동
3. 소비성향 / 친구관계 / 부모불평 : 용돈 과소비, 군것질, 새 것만 선호, 친구문제고민, 장시간 전화사용, 부모에게 말대꾸, 도시락 반찬에 신경질
4. 생활습관(불성실) : 매일 늦잠, 책상과 방정리

안함, 인스턴트 음식 선호, 잘 씻지 않음, 벗은 옷 아무데나 둠, 편식, 존대말 쓰지 않음, TV 과다 시청

5. 외모치장 : 유행하는 옷 선호,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따르기, 외모 꾸미기에 노력, 자주 옷 사러 다니기
6. 학업태도 : 진로 선택에서 고집, 대학에 안가도 재수는 절대 안함, 과외공부나 학원에 다니기가 싫음
7. 연예·오락물 선호 : 하이틴 잡지 · 연예인 사진 · 비디오 보기 · 가수 콘서트 · 음악 크게 틀고 듣기 등을 좋아함, 공부할 때 늘 음악 들음
8. 자기위주 / 부모무시 : 방에서 불러도 잘 안나옴, 방문 잠그기, 어른보다 먼저 식사, 감사인사 안함
9. 인사성 결여 : 동네 어른들이나 부모님께 인사성 결여
10. 성적관련 / 직선적 행동 / 고집 : 공부가 최우선,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 낮은 학교 성적(역관계로 처리),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음

부/모/자녀 집단들 각각에서 모두 10가지 행동집단들간에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세부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요인 10의 성적과 관련된 행동들은 단지 요인 4(생활습관)의 행동하고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이 분석을 부/모/자녀 각각의 경우에 적용하였을 때, 요인10과 요인4(생활습관문제)가 관련있게 나온 것은 어머니의 경우 뿐이었다. 이는 자녀가 성적이 좋은 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눈에는 그들이 늦잠이나 인스턴트 음식 선호, 편식, TV를 좋아하는 것 등의 행동을 더 한다고 지각한다는 의미이다.

2. 집단(부/모/자녀)의 차별적 행동 지각

청소년의 일상행동에 대한 빈도와 문제 정도 지각에서의 결합분포(multivariate joint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다변량분포의 중심점 차이 비교를 위해 다변인 변량분석(MANOVA)이 이루어졌다. MANOVA를 적용한 것은 각 행동범주를 나타내는 요인들이 각기 서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각기 따로 변량분석하면 독립변인들간에 존재 않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각 집단간의 차이가 각 행동범주의 판단에 얼마나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청소년의 일상행동 빈도에 대한 반응을 부/모/자녀 세 집단에서 각기 비교 분석하였다. 세 집단에 따라 각 행동요인이 차이가 있는가를 MANOVA로 분석했을 때, Hotellings 방법에 의하면 $F(2,425)=13.22, p<.0001$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 요인별로 분석할 때, 행동요인 1 (비행행동과 유사

한 내용 : $F(2,425)=22.28, p<.0001$), 2 (말버릇, 즉흥성 : $F(2,425)=58.88, p<.0001$), 3 (소비성향, 친구문제 고민, 부모불평 : $F(2,425)=18.15, p<.0001$), 6 (학업태도 : $F(2,425)=48.38, p<.0001$)에서 세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 네 요인에서 집단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네 가지 요인 모두에서 자녀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에게 지각된 청소년의 행동빈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전체 10개 행동범주 빈도 지각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점수는 표4에 세 집단별로 제시되어있다.

제시된 행동들이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부/모/자녀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해보았다. 전체 10개의 행동범주에 대한 문제시 정도가 세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2,425)=9.72, p<.0001$). 이 중에서 행동요인 2와 10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모든 행동요인, 즉 1, 3, 4, 5, 6, 7, 8, 9요인에서 부모 집단의 응답 수준이 청소년 자녀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요인1(비행행동과 유사한 내용 $F=(2,425), p<.0001$), 요인5(의도치장), 요인7(연예물, 오락위주 $F=(2,425), p<.0001$), 요인8(부모무시, 자기 위주 $F=(2,425), p<.0001$)의 네 요인 모두에서 자녀의 응답보다 부모의 지각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간에게 지각된 청소년의 행동문제 지각정도에는

표4. 부/모/자녀집단의 청소년 일상생활 행동 빈도 응답의 평균과 표준편차

행동요인	1.	2.	3.	4.	5.	6.	7.	8.	9.	10.
아버지	<u>1.47</u> (.55)	<u>1.95</u> (.71)	<u>2.15</u> (.86)	2.85 (.82)	2.26 (.99)	<u>2.22</u> (.90)	1.88 (.65)	1.98 (.74)	2.08 (1.03)	2.77 (.67)
어머니	<u>1.51</u> (.68)	<u>2.00</u> (.79)	<u>2.12</u> (.80)	3.02 (.79)	2.26 (.89)	<u>2.50</u> (.93)	2.04 (.74)	2.01 (.76)	2.06 (1.09)	2.74 (.70)
자녀	<u>1.93</u> (.72)	<u>2.80</u> (.81)	<u>2.62</u> (.79)	3.05 (.68)	2.48 (1.01)	<u>3.21</u> (.87)	1.96 (.68)	2.07 (.69)	2.27 (.99)	2.64 (.69)

<밑줄 친 행동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도 지지되었다. 표5에는 부모/자녀집단의 청소년 일상행동 문제정도 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이 두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부모들은 자신들이 자녀들의 문제 행동이라 생각되는 행동들이 실제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것보다 행동빈도가 적다고 본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의 행동들을 청소년 자녀가 스스로 지각하는 것보다 더 문제시 여기고 있다. 이 결과는 부모와 자녀간의 자녀들의 일상행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의사소통 양식: 차별적 사회적 표상의 근원

부모 자녀간의 관계에서 청소년 자녀의 일상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지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각 집단이 일상 문제행동에 대한 빈도와 문제성 지각이 다른 것은 서로 이들 행동에 대해 상이한 사회적 표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에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양식과 특성을 분석하여 이런 사회적 표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즉, 부모/자녀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유형과 형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이 관계에서 청소년

자녀와 갈등을 야기하는 부모들의 사회적 표상의 근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은, 그 행동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에서, 의사소통의 역기능적인 형태와 개방/폐쇄성에 관한 것으로 나뉘어 측정되었다. 아버지-자녀와 어머니-자녀의 관계 각각에서 어떻게 지각되고 있는지를 따로 분석하였다.

1)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행동적인 측면

의사소통의 역기능성이 어떠한 유형(요인)으로 분류되는가를 알기 위해,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였다. 특히, 집단간의 지각차이에 대한 이유와 의사소통 유형과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부모-자녀, 모-자녀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형태를 각기 따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경우, 아버지가 보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의사소통 방식과 자녀가 보는 자신의 아버지의 의사소통 방식을 나타내는 자료를 함께 요인분석하여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에 대한 요인명을 주고, 아버지와 자녀 두 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 방법은 어머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의사소통의 역기능성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간에는 의사소통 유형에는 권위·회피·회생·추종의 네 요인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비해, 어머니와 자녀간에는 아버지에게 따로

표5. 부모/자녀집단의 청소년 일상생활 행동 문제 정도 지각의 평균 (표준편차)

행동요인	1.	2.	3.	4.	5.	6.	7.	8.	9.	10.
아버지	3.56 (.73)	3.42 (.72)	3.19 (.56)	3.17 (.53)	3.15 (.61)	2.97 (.55)	3.17 (.54)	3.28 (.62)	3.34 (.73)	2.92 (.38)
어머니	3.66 (.72)	3.48 (.70)	3.17 (.49)	3.16 (.54)	3.01 (.45)	3.00 (.50)	3.17 (.53)	3.30 (.62)	3.56 (.81)	2.88 (.42)
자녀	3.03 (1.16)	3.31 (.81)	2.84 (.81)	2.91 (.76)	2.55 (1.00)	2.37 (.83)	2.41 (.95)	2.97 (.99)	3.07 (1.17)	2.74 (.70)

<밑줄 친 행동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묵었던 추종 요인의 문항들이 회피와 희생 요인으로 나뉘어졌다. 아버지의 권위요인에 묶여있는 문항들이 적극적 권위와 소극적 권위의 정도에 따라 어머니에서는 권위와 회피로 구분되었다. 예를 들면, 적극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명령과 지시,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내는 등의 행동은 어머니의 권위요인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소극적 권위행사 행동이라 할 수 있는 '자녀의 좋은 점은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자녀의 생각을 듣기보다는 내 말을 먼저한다'든가 '말할 때 다른 행동도 같이 한다'는 것 등은, 대화시 듣지 못한척 하든가 자녀의 탓으로 잘못을 돌린다든가 모르는 것도 아는척 말한다든가 하는 아버지에서의 회피요인 문항에 더해져서 회피요인으로 묶였다.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해당 요인별로 부록2에 정리되어 있으며,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는 표6에 제시되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 각각에 대해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을 나타내는 요인들간의 상관관계는 표7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회피적일수록 어머니도 또한 그렇다고 지각되고 있다. 즉, 부모에 대해 유사하게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한편, 아버지가

희생적일수록 어머니는 덜 권위적이며, 아버지가 희생적일수록 어머니도 희생적이라는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유사하게 지각함을 보여준다. 반면, 아버지가 추종적일수록 어머니가 회피적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회피에 대한 보상을 아버지에게서 찾고 있는 듯하다. 또한, 어머니의 희생은 아버지의 희생과만 상관관계를 보였을 뿐, 그 외 다른 변인과는 유의하지 않아 아버지의 다른 역기능적인 유형의 의사소통을 보완해주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일상행동지각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지각이 청소년 일상행동에 대한 부/모/자녀 집단간 인식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회귀분석은 행동빈도와 문제성에 대한 지각 반응에 대해 각각 이루어졌다.

(1) 아버지-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행동 빈도 지각

청소년 행동 빈도 지각에 대해, 10개의 각 행동 요인별로 의사소통의 하위변인들이 끼치는 영향력을 각기 분석하였다. 표8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표6.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하위변인간의 상관관계

요인(부)	1.	2.	3.	4.	요인(모)	1.	2.	3.
1. 권위	1.0000				1. 권위	1.0000		
2. 회피	.6133***	1.0000			2. 회피	.4852***	1.0000	
3. 희생	-.1657***	-.2024***	1.0000		3. 희생	-.1733***	.0544	1.0000
4. 추종	.1235*	.2457***	.1068	1.0000				

* p<.01, *** p<.001

표7.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지각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아버지—		권위	회피	희생	추종
어머니—	권위	.6237***	.4142***	-.1707*	.1153
	회피	.4161***	.5296***	-.0552	.3245***
	희생	-.1030	-.0633	.4646***	.1046

* p<.01, ** p<.05, *** p<.001

요인1(준 비행행동), 2(말버릇/즉흥성), 3(소비성향, 친구관계, 부모불평), 4(생활습관), 6(학업관련), 9(인사성)의 행동영역에서 아버지의 의사소통유형 중 권위적인 유형이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있게 나타났다. 요인5(외모치장)에서는 권위와 추종의 유형이, 요인8(자기위주/부모무시)에서는 권위와 회피의 유형이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력 있게 나타났다. 요인7(연예, 오락물 선호)은 회피요인이, 요인10(성적관련/직선적행동/고집)은 추종요인이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있게 나타났다.

(2) 아버지-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문제성 지각

10개의 각 행동요인별로 아버지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생활행동에 대한 문

제 정도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표9는 아버지-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요인이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에 대한 문제성 지각에 대한 예인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행동요인 3(소비성향/친구관계/부모불평)에 대해서는 회생이 정적인 방향으로, 요인 5(외모치장), 요인 6(학업관련)에서는 회피가 정적인 방향으로, 요인 9(인사성 결여)에서는 회피가 부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그 외 행동요인들을 설명해 주는 의사소통의 역기능적인 변인은 없었다. 이는 가설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행동요인별로 영향력에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어머니-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문제행동 빈도 지각

표8. 문제행동 빈도 지각과 관련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양식(권위/회피/회생/추종)

관련행동요인들	독립변인	B	SE B	Beta	T	△R ²
1. 준 비행행동	— 권위	.29	.06	.28	5.23***	.08***
2. 말버릇/즉흥성	— 권위	.32	.06	.26	5.03***	.07***
3. 소비성향/친구/부모불평	— 권위	.34	.06	.27	5.28***	.07***
4. 생활습관	— 권위	.20	.06	.19	3.57***	.04***
5. 외모치장	□ 추종	.18	.07	.14	2.62**	.06***
	□ 권위	.27	.08	.18	3.51***	.04***
6. 학업태도	— 권위	.29	.08	.19	3.73***	.04***
7. 연예, 오락물 선호	— 회피	.23	.05	.22	4.24***	.03***
8. 부모무시/자기위주	□ 권위	.30	.07	.29	4.55***	.15***
	□ 회피	.17	.07	.15	2.43*	.16***
9. 인사성 결여	— 권위	.34	.08	.23	4.48***	.05***
10. 성적관련/직선적행동/고집	— 추종	.10	.05	.11	2.13*	.01*

* p<.05, ** p<.01, *** p<.001

표9. 청소년 생활행동 문제성 지각 수준과 관련된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특성

관련행동변인들	독립변인	B	SE B	Beta	T	△R ²
3. 소비성향/친구/부모불평	— 회생	.10	.04	.13	2.39*	.02*
5. 외모치장	— 회피	.19	.08	.13	2.52*	.02*
6. 학업태도	— 회피	.16	.07	.12	2.30*	.01*
9. 인사성 결여	— 회피	-.17	.08	-.11	-1.98*	.01*

* p<.05, ** p<.01, *** p<.001

어머니-자녀의 경우, 행동빈도 지각은 요인2(말버릇,즉흥성), 4(생활습관), 5(외모치장), 9(인사성)에서 어머니의 권위적인 의사소통 영향이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10은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 양식이 문제행동빈도 지각과 어떻게 관련 있는가를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요인1(비행행동)과 요인7(연예,오락 위주)에서는 권위와 회피의 유형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요인3(소비성향, 친구관계, 부모불평)과 6(학업관련)은 권위와 회생이, 요인8(부모무시/자기위주)에서는 권위와 회피, 회생의 유형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요인3, 6, 8에 동일하게 회생유형이 영향을 미쳤다. 부모에게 불평하고(요인3) 부모 생각을 안해주고 자기위주(요인8)라는 행동이 회생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자신이 회생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그러한 행동을 더 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역시 가설2에서 논의되었던,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생활 문제 지각에서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요인10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요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4) 어머니-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행동의 문제성 지각

어머니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행동의 문제성 지각과의 관계는 표11에 나타나 있다. 각 행동분류 유형으로 살펴보면, 요인5(외모치장), 7(연예, 오락 위주), 10(성적관련/직선적 행동)에서 어머니의 회피적인 의사소통이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있게 나타났다. 요인6(학업관련)의 경우는 회피가 정적인 방향으로, 회생은 부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있게 나타났다. 그 외 요인1(준 비행행동), 2(말버릇/즉흥성), 3(소비성향/친구관계/부모불평), 4(생활습관), 8(부모무시/자기위주), 9(인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다.

3)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서적 측면

의사소통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부/모/자녀 각 집단에서, 청소년의 행동 빈도와 그 행동에 대한 문제 정도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먼저, 요인분석을 통해 정서적 측면의 의사소통에 대한 하위변인을 구분하고, 부/모/자녀 각 집단에서 서

표10. 문제행동 빈도 지각과 관련한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양식(권위/회피/회생)

관련행동변인들	독립변인	B	SE B	Beta	T	ΔR^2
1. 준 비행행동	회피	.19	.08	.15	2.50***	.05***
	권위	.15	.06	.15	2.42***	.07***
2. 말버릇/즉흥성	권위	.37	.06	.31	6.14***	.09***
3. 소비성향/친구/부모불평	권위	.30	.06	.27	5.20***	.06***
	회생	.08	.04	.10	1.99*	.07***
4. 생활습관	권위	.14	.05	.14	2.72**	.02**
5. 외모치장	회피	.38	.08	.19	3.74***	.04***
6. 학업태도	회생	.18	.05	.18	3.57***	.03**
	권위	.16	.07	.12	2.24*	.04***
7. 연예, 오락물 선호	권위	.15	.06	.15	2.66**	.04***
	회피	.14	.07	.12	2.05*	.06***
8. 부모무시/자기위주	권위	.29	.05	.29	5.27***	.16***
	회피	.23	.07	.18	3.36***	.18***
	회생	-.07	.03	-.10	-1.99**	.19***
9. 인사성결여	권위	.30	.07	.20	3.99***	.04***

* p<.05, ** p<.01, *** p<.001

로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대한 문항들은 아버지-자녀와 어머니-자녀에게서 동일한 영역인, 개방성과 폐쇄성의 두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방성에는 자신의 개방성 뿐 아니라 마음을 열고 대화하려는 상대방의 노력과 현재 상대에 대한 지각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문항이 세 집단에서 각 요인별로 구분되었기에, 부/자, 모/자 양쪽 모두에 동일한 요인이 적용되었다.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해당 요인별로 부록2에 정리되어 있다. 부/모 모두의 경우, 폐쇄성과 개방성은 부적인 상관관계(부: -1.7, 모: -.21)을 보였다.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의사소통의 개방/폐쇄성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개방/폐쇄성 간의 상관관계는 표12에 나타나 있다. 아버지가 개방적이면 어머니도 또한 그렇고, 아버지가 폐쇄적이면 어머니도 또한 그러하다고 부모에 대해 유사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4) 개방/폐쇄적 의사소통과 행동 지각

(1) 아버지-자녀간의 개방/폐쇄적 의사소통과 행동빈도 지각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경우, 빈도 지각과 관련된 의사소통의 개방성 요인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3에 나와 있다. 행동요인2(말버릇, 즉흥성, 부모불평)와 요인10(성적, 직선적)의 경우는 서로간의 개방성이 부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있게 나타났다. 행동요인1(준 비행행동), 3(소비성향/친구관계/부모불평), 4(생활습관), 5(외모치장), 6(학업관련), 7(연예, 오락물 선호), 9(인사성)의 영역에서는 서로의 폐쇄성요인이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있게 나타났다. 또한, 요인 8(부모무시/자기위주)에서는 개방성은 부적으로 폐쇄성은 정적으로 두 유형 모두가 영향력 있게 나타났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기분을 상대가 모르며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솔직한 감정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폐쇄성이, 자녀의 생활문제 요인 전반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끼쳤다. 그 중에서도 부모 생각을 앎고 자기위주로 불러도 방에서 안나온다든가 문을 잘 잠그고 있다든가 하는 행동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 더욱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표11. 청소년 생활행동 문제성 지각 수준과 관련된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특성

관련행동변인들	독립변인	B	SE B	Beta	T	△R ²
5. 외모치장	— 회피	.23	.08	.16	2.98**	.02**
6. 학업태도	회피	.26	.07	.19	3.63***	.03***
	희생	-.10	.04	-.13	-2.55*	.05***
7. 연예·오락물선호	— 회피	.18	.08	.12	2.22*	.01*
10. 성적관련/직선적행동/고집	— 회피	.14	.05	.14	2.63**	.02**

* p<.05, ** p<.01, *** p<.001

표12. 청소년이 지각하는 개방/폐쇄적 의사소통 변인들의 부모에서의 관계

아버지—	개방성	폐쇄성
어머니— 개방성	.5102***	-.1641*
폐쇄성	-.2131***	.4899***

* p<.01, ** p<.05, *** p<.001

(2) 아버지-자녀간의 개방/폐쇄적 의사소통과 일상 행동 문제성 지각

아버지와와의 개방/폐쇄적인 의사소통이 생활행동에 대한 문제 지각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 행동요인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4에 제시되었다. 행동요인1(비행행동과 유사)과 8(부모 생각않고 자기위주)에서 개방성에 대한 지각은 정적인 방향으로 폐쇄성에 대한 지각은 부적인 방향으로 영향력 있게 나타났다. 요인2 (말버릇, 즉흥성), 3(소비성향, 친구관계, 부모불평), 9(인사성 결여)는 개방성이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있게 나타났다. 요인5(외모치장), 7(연예, 오락물 선호)은 폐쇄성 지각이 부적이었다. 즉, 폐쇄적이지 않고 서로에 대해 마

음이 열려 있으면 위에 나열된 요인의 행동들을 더 민감하게 지각하여 더 걱정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 외 요인4(생활습관), 6(학업관련), 10(성적, 직선적 행동)에서는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변수가 없었다.

(3) 어머니-자녀간의 개방/폐쇄적 의사소통과 행동 빈도 지각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과 행동빈도의 지각에 대한 결과는 표15에 제시되었다. 행동요인1(준 비행행동), 3(소비성향, 친구관계, 부모불평), 5(외모치장), 6(학업관련), 7(연예, 오락물 선호)에는 폐쇄성요인이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이

표13.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빈도 지각과 아버지-자녀 의사소통(개방/폐쇄성) 특성

관련행동변인들	독립변인	B	SE B	Beta	T	△R ²
1. 준 비행행동	— 폐쇄성	.31	.05	.34	6.58***	.16***
2. 말버릇/즉흥성	— 개방성	-.08	-.09	.97	-1.72*	.22***
3. 소비성향/친구/부모불평	— 폐쇄성	.37	.05	.35	7.11***	.31***
4. 생활습관	— 폐쇄성	.13	.05	.14	2.62**	.40**
5. 외모치장	— 폐쇄성	.24	.07	.18	3.56***	.03***
6. 학업태도	— 폐쇄성	.42	.06	.33	6.55***	.11***
7. 연예, 오락물선호	— 폐쇄성	.22	.04	.25	4.83***	.06***
8. 부모무시/자기위주	— 폐쇄성	.24	.04	.27	5.46***	.10***
	— 개방성	-.24	.05	-.26	-5.25***	.16***
9. 인사성결여	— 폐쇄성	.25	.07	.19	3.76***	.04***
10. 성적관련/직선적행동/고집	— 개방성	.19	.05	.21	4.02***	.04***

* p<.05, ** p<.01, *** p<.001

표14. 아버지-자녀간의 개방/폐쇄적 의사소통(개방/폐쇄성)과 일상 행동의 문제성 지각

관련행동변인들	독립변인	B	SE B	Beta	T	△R ²
1. 준 비행행동	— 개방성	.21	.08	.15	2.77**	.03**
	— 폐쇄성	-.19	.07	-.15	-2.63**	.05***
2. 말버릇/즉흥성	— 개방성	.15	.06	.14	2.70**	.02**
3. 소비성향/친구/부모불평	— 개방성	.18	.05	.18	3.49***	.03***
5. 외모치장	— 폐쇄성	-.18	.06	-.16	-2.97**	.02**
7. 연예, 오락물선호	— 폐쇄성	-.19	.06	-.17	-3.17**	.03**
8. 부모무시/자기위주	— 개방성	.21	.06	.18	3.39***	.04***
	— 폐쇄성	-.13	.06	-.12	-2.26*	.06***
9. 인사성결여	— 개방성	.19	.07	.14	2.63**	.02**

* p<.05, ** p<.01, *** p<.001

표15.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빈도 지각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개방/폐쇄성) 특성

관련행동변인들	독립변인	B	SE B	Beta	T	ΔR ²
1. 준 비행행동	— 폐쇄성	.30	.05	.33	6.59***	.11***
2. 말버릇/즉흥성	— 폐쇄성	.38	.05	.36	7.47***	.15***
	— 개방성	-.16	.05	-.15	-3.21**	.17***
3. 소비성향/친구/부모불평	— 폐쇄성	.38	.05	.38	8.07***	.14***
5. 외모치장	— 폐쇄성	.23	.06	.19	3.81***	.04***
6. 학업태도	— 폐쇄성	.39	.06	.33	6.79***	.11***
7. 연예, 오락물 선호	— 폐쇄성	.11	.04	.13	2.49*	.02*
	— 개방성	-.21	.04	-.24	-4.97***	.08***
8. 부모무시/자기위주	— 폐쇄성	.18	.04	.21	4.37***	.13***
	— 개방성	-.23	.06	-.18	-3.52***	.04***
9. 인사성결여	— 폐쇄성	.17	.06	.13	2.58*	.24***
	— 개방성	.15	.04	.18	3.56***	.02**
10. 성적관련/직선적행동/고집	— 폐쇄성	.11	.04	.13	2.57*	.04***

* p<.05, ** p<.01, *** p<.001

표16. 어머니-자녀간의 개방/폐쇄적 의사소통과 행동의 문제성 지각

관련행동변인들	독립변인	B	SE B	Beta	T	ΔR ²
1. 준 비행행동	— 폐쇄성	-.28	.07	-.23	-4.25***	.05***
2. 말버릇/즉흥성	— 개방성	.11	.05	.12	2.23*	.01*
	— 폐쇄성	-.13	.05	-.12	-2.41*	.02*
6. 학업태도	— 폐쇄성	-.22	.05	-.22	-4.29***	.04***
	— 개방성	-.13	.05	-.13	-2.61**	.05***
7. 연예, 오락물 선호	— 폐쇄성	-.19	.06	-.18	-3.50***	.03***
8. 부모무시/자기위주	— 폐쇄성	-.15	.06	-.14	-2.76**	.02**

* p<.05, ** p<.01, *** p<.001

있었다. 요인2(말버릇/즉흥성/부모불평), 8(부모무시/자기위주), 9(인사성 결여)의 경우는 폐쇄성은 정적인 방향으로 개방성은 부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요인10(성적관련, 직선적 행동)의 경우는 개방성과 폐쇄성 모두 정적인 방향으로 관련이 있었다. 단지 요인4(생활습관)의 행동영역에서만 영향력있게 나타난 요인이 없었다. 이는 어머니의 경우는 자녀의 생활습관적인 면들에 대해 아버지보다는 좀 더 상세히 알고 있거나 또는 같은 정도로 알고 있으나 그에 대해 그만큼 더 민감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4) 어머니-자녀간의 개방/폐쇄적 의사소통과 행

동의 문제성 지각

청소년의 생활행동에 대한 문제성을 지각하는 것이 어머니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가지는 정도와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6에 제시되었다. 10개의 각 행동요인별로 볼 때, 행동요인1(준 비행행동), 5(외모치장), 7(연예, 오락물 선호), 8(부모무시/자기위주)에서 아버지와의 폐쇄성 지각이 부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있게 나타났다. 요인2(말버릇, 즉흥성)는 개방성에 대한 지각이 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요인6(학업관련)은 개방성과 폐쇄성 모두 부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의 요인3(소비성향/친구관계/부모불평), 4(생활습관),

9(인사성 결여), 10(성적관련/직선적행동/고집)에서는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변수가 없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 부/모/자녀 각각이 가진 이해의 틀(사회적 표상)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가설과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행동의 빈도와 그 문제 정도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부/모/자녀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자녀 세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들과 부모집단을 비교해 보았을 때, 부모집단이 자녀보다 행동 문제의 빈도를 낮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차이가 난 이들 행동 영역은 생활습관과 같이 부모에게 많이 보여질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라, 비행행동과 유사한 행동이나 친구문제, 학업관련 문제에 대한 고민과 관련있는 영역이었다. 이들 영역은 부모보다는 또래와의 관계속에서 더 나타나고 공유될 수 있는 영역들이므로, 부모의 지각이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청소년들의 일상문제 행동들이 어느 정도 문제로 지각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요인을 제외하고, 모두 청소년 자녀보다 부모가 각 행동들이 더 문제라고 지각하였다. 심지어 준 비행행동의 경우에도 자녀는 부모에 비해 이 행동들이 덜 문제가 된다고 지각하였다. 이는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기존의 비행행동 연구들에서 측정한 극단적인 행동들, 예를 들어, 약물, 혼숙, 절도, 폭력, 성비행 등보다는 그 정도가 덜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준 비행행동이라고 생각되는 음주나 흡연, 늦은 귀가, 음란 비디오 보기, 이성교제 등의 행동들이 이제 청소년 집단에서는 매우 심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어느 정도 수용될 수도 있는 행동들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둘째, 부/모/자녀집단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 일상행동에 대한 사회적 표상의 내용율, 부모와 자녀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소통에 대한 서로의 지각 차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아동기까지는 자신들의 의지대로 자녀를 키우기가 비교적 쉬웠으나, 시간이 지나 청소년기로 들어서며 자율성과 정체성 확립의 욕구가 강해져 소위 '그들만의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과 충돌하는 자녀에게 당황하게 된다. 여기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부모는 자신의 신념 체계인 사회적 표상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자신의 임무이고 책임이라고 믿으며 그 때까지 사용한 자신들의 양육에 대한 자신의 사회적 표상을 계속 고집하게만 되고, 자신의 생각을 자녀들이 받아들일도록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것이다.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체계는 시간이 흘러도 변화하지 않고(McNally, Eisenberg, & Harris, 1991), 단지 키우는 아이만이 변화하게 되는 피리가 벌어진 것이다.

일상생활 행동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표상을 특징지우는 의사소통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동빈도 지각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변수로 작용한 것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이었다. 그 중 가장 주된 내용은 '권위'였다. 이는 아버지의 경우에서 더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 자신이 친숙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처한다. 최근에 지적되고 있는 가정내에서의 아버지의 위상에 관한 문제나 양육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암시된다.

어머니의 경우도, 행동빈도의 지각에 있어 권위요인의 영향력이 폭 넓게 작용하였으며, 이와 함께 회피와 회생 요인도 각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이 결과를 아버지의 경우와 비교할 때, 어머니는 회피하기도 하지만 권위를 내세우는 정도도 차이가 있었다. 준 비행행동에 대해서는 회피의 반응이 권위보다는 더 크게 나타났지만, 불성실한 학업

태도나 자신의 주장대로 하려는 행동에는 희생 요인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자녀가 보이는 무시나 서운한 감정에 대해 자신의 권위도 세워보고, 또 회피하거나, 자신의 희생과 연결짓거나 하는 등의 여러가지로 복합된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해석하게 한다.

청소년 자녀의 일상문제 행동을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시하는가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에게 회피 유형이 절대적으로 작용하였다. 아버지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속하는 행동유형의 경우 수궁할 수도 있지만, 불성실한 학업태도같은 '골칫거리'인 문제에 대해서도 회피의 형식을 보이는 것은 부모의 이중적인 사고와 행동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문제 정도의 지각에 대해서는 어머니도 회피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보아, 부모 모두는 자녀의 행동의 빈도를 지각하는 틀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녀들의 특정 행동들이 문제가 된다고 인식은 하고 있으나, 자녀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어떻게 잘 해결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 하기보다는 아예 회피하는 방식으로 빌어 문제의 심각성에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의사소통의 또 한가지 측면이 될 수 있는 정서적인 측면인 개방성과 폐쇄성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부모 모두 폐쇄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다. 그런데, 아버지는 더 추종적이고 어머니는 더 희생적이라고 대답한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아버지의 추종이 어머니의 희생과 같은 의미일 때, 현시대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자녀의 눈에는 진심으로 개방적인 마음에 바탕을 둔 것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다고 해석된다. 부모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자녀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자녀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또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낳을 것이며, 이러한 악순환은 분석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에 대해서도 자녀들

은 더 폐쇄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방성에 대해서는 서로를 비슷하게 지각하고 있었으므로, 정확히 폐쇄적이라는 의미보다는 그에 포함되어 있는 '잔소리를 하고 성가시게 한다'에 대한 반응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어머니가 더 희생적이지만 폐쇄적이라는 지각이 동시에 나타난 것을 볼 때, 어머니의 '희생적'인 행동에 대해 자녀들은 긍정적으로만은 보고 있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청소년의 행동에 관한 문항들을 제작할 때, 선행연구들을 참조하고 소수의 학생들에게 조언을 구하였지만, 이들 행동들이 청소년들이 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는 모든 생활 문제 행동들을 포괄한다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연구대상을 선택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했을 때 비율이, 청소년의 경우는 74%였고, 부모는 63%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그런데, 더우기 자료 정리 과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응답이 동일한 것이 많아 결국 분석에 사용된 것은 배포된 총인원수에 대해 아버지는 48%, 어머니는 57%로 비교적 낮았다. 이는, 부/모/자녀를 한 조로 하여 배포하여서 수거가 어려웠던 점도 있었으나, 결국 부모-자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덜한 사람들은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몇 가지를 더한다면, 첫째, 개개인이 어떠한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표상에 관련된 변수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무작위 표집으로 그 효과를 통제했으나, 살펴보기 원하는 변수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작이나 처치가 가능하다면 여러 변수나 요인들간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성격이라든가 기질,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한 물리적인 배경, 또래와의 관계양상, 좀 더 넓게 본다면 그 사람이 속해있는 지역사회나 국가 또는 문화권에 따라 가지고 있는 다른 인식의 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넓게는 문화권에서의 차이(Weisz, Weiss, & Mosk, 1993)와 그에 비해 좁게는 어머니/교사/자녀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보고자간의 견해 차이(Achenbach, Stephanie, McConaughy, & Howell, 1987)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사회적 표상의 질적인 차이는 부모에 대한 엄격한 구별이 있는 체계적인 연구를 요구한다. 가족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부간 사회적 표상의 일치나 차이 정도를 그 가족의 특성과 연결지어 가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설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가 각각 형성하는 사회적 표상들의 차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어진다면, 부모-자녀관계에서의 문제해결에 대한 더욱 상세하고 명확한 지침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시기에 사고의 틀이 어떠한 변인의 영향으로 어떻게 전환되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갖는가 하는 접근은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의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표상의 차이가 존재할 때, 서로간 차이를 보이는 그 공간을 메우는 것보다는, 그러한 공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대의 사회적 표상인 사고방식을 이해한 입장에서의 상호작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결국 서로 다른 개체간에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고성혜(1985).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박금순(편).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총본부.
 김경신(1993). 부모와 수험생 자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한국 가족학 연구회(편),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pp.77-106.
 김정희(1987).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중고생 남녀 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경희(1987). 준거집단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의 비행에 대한 태도와 비행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옥선화(1985).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박금순(편). 사단법인 한국부인회총본부.
 이연숙(1991). 가족체계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적응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정희(198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병신과 장승옥(1984). 한국 청소년 연배집단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 여름호.
 조은경(1987). 가족의 커뮤니케이션과 권력에 관한 기능적 이론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5권, 2호.
 청소년 문제 연구회(1979). 청소년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최상진(1990). 사회적 표상이론에 대한 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9(1), 74-86.
 Achenbach, T. M., McConaughy, S. H., & Howell, C. T.(1987). Child / adolescence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cross-informant correlations for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2), 213-232.
 Barnes, H.L. & Olson, D.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Braine, L. G., Promerantz, E., Lorber, D., & Krantz, D. H.(1991). Conflicts with authority : Children's feelings, actions, and justifications. *Developmental*

- psychology*, 27(3), 829-840.
- Capaldi, D. M. & Peterson, G. R.(1991). Relation of parental transitions to boys' adjustment problems : I. A Linear Hypothesis. II. Mothers at risk for transitions and unskilled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89-504.
- Goodnow, J. J.(1984). Change and variation in parents' ideas about childhood and parenting. In I.E. Sigel (Eds.), *Parental belief systems* (pp.235-270). Hillsdale, NJ : Erlbaum.
- Goodnow, J. J.(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Kochanska, G.(1990). Maternal beliefs as long-term predictors of mother-child interaction and report. *Child Development*, 61, 1934-1943.
- Kochanska, G., Kuczynski, L., & Radke-Yarrow, M. (1989). Correspondence between mothers' self-reported and observed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60, 56-63.
- Molinari, L. & Emiliani, F.(1990). What is in an image? The structure of mothers' images of the child and their influence on conversational style. *Social represent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pp.91-106).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록1.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척도 문항

아버지 응답

요인적재량

요인 1 : 권위 -- 9 문항

- 20. 자녀에게 명령과 지시를 자주 하게 된다. .7822
- 2. 자녀가 잘한 일보다는 잘못하는 일이 먼저 보인다. .7651
- 12. 자녀에게 화를 잘 내게 되고 언성이 높아진다. .7092
- 9. 자녀의 생각을 듣기보다는 내 말을 먼저 한다. .6357
- 1. 자녀의 주장이 옳아도 나 자신의 주장을 고집한다. .5776
- 3. 자녀에게 말할 때에 미리 생각하는 것 없이 그냥 말한다. .5408
- 13. 자녀의 좋은 점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5216
- 17. 자녀에게 너는 무슨 일이나 잘 못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4997
- 10. 자녀와 이야기할 때, 다른 생각이나 행동도 같이 한다. .4339

요인 2 : 회피 -- 5 문항

- 6. 자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 한다. .6904
- 4. 자녀의 눈치를 보며 말하기도 한다. .6860
- 7. 자녀와 대화할 때 듣지 못한 척 다른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한다. .6683
- 5. 내 잘못도 자녀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6407
- 16. 자녀에게 욕을 하게 된다. .5041

요인 3 : 희생 -- 3 문항

- 15. 내 아이와 아내를 위해 무조건 참고 견뎌야겠다고 생각한다. .7915
- 11. 내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 산다고 생각한다. .7495
- 19. 가족들을 위해 나를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7343

요인 4 : 추종 -- 3 문항

- 8. 무조건 자녀의 의견에 동의한다. .8163
- 14. 모르는 화제에도 아는 척 말할 때가 있다. .5209
- 18. 말할 때 화제의 주제를 자주 바꾼다. .4348

어머니의 응답

요인적재량

요인 1 : 권위 -- 6 문항

- 20. 자녀에게 명령과 지시를 자주 하게 된다. .7497
- 12. 자녀에게 화를 잘 내게 되고 언성이 높아진다. .7225
- 2. 자녀가 잘한 일보다는 잘못하는 일이 먼저 보인다. .6545
- 17. 자녀에게 너는 무슨 일이나 잘 못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5857
- 6. 자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 한다. .5184
- 3. 자녀에게 말할 때에 미리 생각하는 것 없이 그냥 말한다. .4963

요인 2 : 회피 -- 10 문항

- 5. 내 잘못도 자녀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7017
- 14. 모르는 화제에도 아는 척 말할 때가 있다. .6972
- 7. 자녀와 대화할 때 듣지 못한 척 다른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한다. .6219
- 13. 자녀의 좋은 점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5263
- 18. 말할 때 화제의 주제를 자주 바꾼다. .5236
- 4. 자녀의 눈치를 보며 말하기도 한다. .4995
- 1. 자녀의 주장이 옳아도 나 자신의 주장을 고집한다. .4757
- 16. 자녀에게 욕을 하게 된다. .4683
- 9. 자녀의 생각을 듣기보다는 내 말을 먼저 한다. .4472
- 10. 자녀와 이야기할 때, 다른 생각이나 행동도 같이 한다. .4252

요인 3 : 희생 -- 4 문항

- 15. 내 아이와 남편/아내를 위해 무조건 참고 견뎌야겠다고 생각한다. .7500
- 19. 가족들을 위해 나를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7414
- 11. 내 아이들과 남편/아내를 위해 산다고 생각한다. .6769
- 8. 무조건 자녀의 의견에 동의한다. .5227

부록2. 의사소통의 개방성 측정 하위척도 문항

아버지의 응답

요인적제량

요인 1 : 개방성 -- 5 문항

- 8. 우리 아이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8016
- 3. 우리 아이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안다. .7329
- 1. 우리 아이는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깊게 잘 듣는다. .7095
- 7. 우리 아이는 나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준다. .6774
- 9. 나는 아이에게 쉽사리 나의 솔직한 감정을 전부 표현한다. .5297

요인 2 : 폐쇄성 -- 5문항

- 6. 나는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을 말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8242
- 10. 우리 아이는 나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한다. .7412
- 4. 나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에게 말한다. .6278
- 5. 나와 아이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종종 말을 하지않는 방법으로 아이를 다룬다. .6047
- 2. 때때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이에게 요구하기가 어렵다. .4840

어머니의 응답

요인 1 : 개방성 -- 6 문항

- 8. 우리 아이는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7158
- 4. 나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에게 말한다. .7134
- 3. 우리 아이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잘 안다. .7035
- 9. 나는 아이에게 쉽사리 나의 솔직한 감정을 전부 표현한다. .6783
- 7. 우리 아이는 나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준다. .6219
- 1. 우리 아이는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깊게 잘 듣는다. .5676

요인 2 : 폐쇄성 -- 4 문항

- 5. 나와 아이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종종 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이를 다룬다. .6934
- 6. 나는 아이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을 말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6596
- 10. 우리 아이는 나를 괴롭히고 성가시게 한다. .6263
- 2. 때때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이에게 요구하기가 어렵다. .4881

韓國心理學會誌：發達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Developmental

1996. Vol. 9, No. 1, 229-250.

The concept of social representation on the differential perception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to daily problematic behavior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pattern

Sang-Min Whang
Sejong University

Hyun Jung Kim
Ewha Women's University

In this research, the concept of social representation was applied to explore the differential frame which was used to understand and assess the adolescents daily problematic behaviors by adolescents themselves and their parents. If there is a difference in their perception on the adolescents' problematic daily behavior, the cause will be identified in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The social representation on problematic behavior which the adolescents themselves and their parents hold was expressed in the pattern of frequency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their significances. 251 adolescents, 164 of their father, and 176 of their mother have identified the daily problematic behaviors and assessed the frequencies of behaviors and their significance. The perception of behavior was expressed differently by the group; adolescents, mother, father group and the difference was varied by the types of problematic behavior. The perceived frequency and importance are expressed differently by the groups according to the meanings of behavior. The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of problematic behavior was related to an avoiding communication pattern. The perception on frequency of problematic behavior was related to an aversive communication pattern which was characterized by an authoritative dimension. However, the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of problematic behavior was characterized by the avoidance communication pattern at both parent groups.